

마우리치오 카텔란의 '농담'



홍경안 역
시시일각

1993년, 이탈리아의 개념 미술가 마우리치오 카텔란(Maurizio Cattelan)은 다른 작가의 작품을 통째로 흡수 전시회를 열었다. 1999년 베니스비엔날레에선 자신에게 허용된 전시 공간을 향수 광고 에이전시에게 팔아넘기는 기행도 벌였다. 1995년 열린 광주비엔날레에 'Tie'라 명명한 2cm짜리 개미 형상의 조각 한 점을 보낸 건 꽤나 유명하다.

심지어 그는 1999년 돈과 권력으로 물든 비엔날레를 비틀기 위해 가상의 비엔날레인 캐리비안비엔날레를 창설, 크리스 오피리(Chris Ofili), 리크리트 티라바니자(Rirkrit Tiravanija) 등의 참여 작가들과 함께 세인트 키츠라는 서인도 제도의 한 섬에서 휴가를 보내는 프로젝트를 펼치기도 했다.

당황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미술계의 악동이라 불리는 카텔란은 새로운 미술사적 의미를 통해 예술의 이상성을 제시하고 미술계를 정복하겠다는 순수한 감정 따윈 일찌감치 내다 버렸다. 차용, 풍

자, 유머를 사용해 기존 가치 체계를 자극하며 우리가 가장 불편해하는 것, 금기시하는 주제들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희화화해 거리낌 없이 내놓았다. 이를 달리 말하면 '비판적 유희'라고 할 수 있다.

'비판적 유희'의 대상은 넓다. 정치, 사회, 종교, 미술계를 넘나든다. 일례로 성경에 등장하는 구시(유대인 시간으로 오후 3시)이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선종한 시간을 빚낸 '아홉 번째 시간(La Nona Ora)'이라는 제목의 작품은 가톨릭교회의 최고 권위자인 교황(요한 바오로 2세)이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에 깔린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종교적 권위와 타락, 인간의 취약성을 꼬집는 조각으로, 1999년 쿤스트 할레 바젤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2023년 리움미술관 전시에도 출품됐다.

일주일이면 써어 없어질 허상의 기호로 바나나 한 개를 벽에 덕트 테이프로 붙여 놓은 게 전부인 '코미디언(Comedian)'(2019)은 동시대 미술 시장의 투기적 성격과 비합리성을 지적한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1000원 남짓할 바나나 한 개가 처음엔 1억원을 웃돌더니 2024년엔 86억원에 거래되는 미술 시장 자체가 그에겐 코미디 같은 현실인 셈이다.

조롱에 가까운 카텔란식 어법은 '아메리카(America)'(2011)라는 제목의 작품에서도 동일하다. 그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물건인 '변기'를 18K 금으로 만들어 2016년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화장실에 설치했다. 총 103kg의 금이 사용돼 일명 '황금 변기'로 통한다. 2019년 영국 블레넬 궁전 전시 중 도난을 당하면서 더욱 화제가 된 작품이다.

제목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 '아메리카'는 미국식 자본주의와 소비주의를 비판함과 동시에 극단적인 부와 사회적 불평등, 예술의 가치에 대해 질문한다. 예술이든 인간관계든 그저 돈이 우선인 현실과 소수의 권력이 그렇지 않은 이들의 뒷과 기회까지 모두 쥔 채 사회적 자본마저 세습하는 구조를 비판하고 있다.

부의 불균형과 자본의 다소가 곧 계급이자 미래의 자리까지 결정하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에서 곱씹게 되는 작품이지만, 한편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술의 민주화라는 측면도 엿볼 수 있다. 특히 한 끼 식사로 10만원 짜리 호텔 뷔페를 먹건, 몇 천원짜리 김밥 한 줄을 먹건, 배설은 동일하다는 사실은 카텔란식 풍자의 정점이다. /미술평론가

이제 보수라는 이름은 어디로



기저 수첩
서예진 (정치경제부)

보수(保守), 정치 용어로 쓰일 때는 기존 체제를 유지하며 점진적 변화를 꾀한다는 표현이다. 한자의 뜻을 풀이해도 보전할 보(保)에 지킬 수(守)다. 보편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한국에서 보혁(保革·보수개혁)을 가르는 기준은 체제 변화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반공(反共)이었다는 게 정치사의 비극이라면 비극이다.

그간 '자·타칭' 한국의 보수라고 분류되던 정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반공을 내세웠다. 이들은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기보다는, 반대 정파를 짓누르는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2025년 현재도 마찬가지다. 반공을 초석으로 쌓아 각자도생을 새긴 집에 민족주의는 흔적조차 없다. 각자도생에 충실하기에, 이들이 한때 언급한 '따뜻한 보수'는 허상인 셈이다.

그들이 그렇게도 외치는 질서 유지가 이 집에 발조차 들여놓지 못했다. 국민들에게 외주를 줬으니까. 질서 유지는 87년 체제의 창조자이자 유지자였던 평범한 국민들의 몫이었으니.

이들은 여전히 반공을 무기로 자신의 지지층을 자극한다. 냉전이 종식된 지 35년쯤 됐고,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된 지 80년이 되어가는 데도. 그리고 이는 역설적으로 이들의 이념적 무기기가 빈약함을 방증했다.

하지만 80년간 '반공 원통'로 움직였던 이 집단이, 이제 드디어 보수라는 이름을 반납하려나보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12·3 비상계엄 사태는 체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게 명징해졌다. 탄핵심판을 지켜본 국민들은 비상계엄의 주동자들이 영화 '서울의 봄'을 2024년 12월에 재현하려 했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다. 아니, 이미 2024년 12월3일에 본능적으로 느꼈기에 분노했다고 본다.

그럼에도 비상계엄의 주동자들은 2025년에도 색깔론을 꺼내들었다. 이 논리가 먹히는 극우 지지층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게 문제다. 보수정당이라 주장하는 집단은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는 발언을 일삼으며 이들에게 구애한다. 사라진 줄 알았던 백골단도 등장했다. 법 체제상 가장 상위에 있는 게 헌법임에도, 이들은 헌법 위의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나라의 근간인 헌법마저 부정하는 걸 보니, 드디어 보수라는 이름과 헤어질 결심이 섰나 싶다. 앞으로 다가올 보수 재편의 역사를 위해, 건투를 빌겠다. /syj@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5일 (음 2월 6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마음처럼 일이 풀리지 않는다. 48년생 눈치보다는 소신대로. 60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도 갈수 있다. 72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84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피라.



37년생 우는 아이는 젖을 줘서라도 달래야 한다. 49년생 차량정비 하는 날. 61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진다는 걸. 73년생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니 난감. 85년생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도리.



38년생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야만 비옥한 땅이 된다. 50년생 오죽하면 삼재 팔란 관 재구설이라 했겠는가. 62년생 가까운 사람부터 신용을 쌓아가자. 74년생 고생은 많고 실속은 적고. 86년생 파란 하늘이 그림과 비벌 언덕이 절실.



39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전진. 51년생 지나친 관심은 나도 상대도 지치게 한다. 63년생 인색하면 고독이 계속된다. 75년생 사랑만 하고 살기에도 시간은 부족하다. 87년생 꽃이 아름다운 것은 잘해야 열매를 가지 못한다.



40년생 허투르가져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덤벼다 낭패 본다. 52년생 시험합격의 기쁨이 있다. 64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좋은 일이 있겠다. 76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88년생 머리는 아프고 몸은 천근만근.



41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현명. 53년생 초조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라. 65년생 자신을 이겨야만 발전도 있다. 77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르니 좋은 하루. 89년생 붉은 시야로 바라볼 때 새로운 것이 눈에 들어온다.



42년생 생선이 먹고 싶다면 물고를 준비하고 바다로 나가라. 54년생 가까운 사람과 불화를 조심. 66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78년생 자신에게 이로운 것만 챙기다 왕따. 90년생 망설이지 말고 주어진 일에 과감히 도전.



43년생 주변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신용을 지켜라. 55년생 남자 친구의 기대가 부담. 67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 79년생 기다림은 길고 만남은 너무 짧다. 91년생 시비를 가리다 보면 내 실수도 튀어나온다.



44년생 상대에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라. 56년생 양보하면 해결책이 보인다. 68년생 규칙적인 운동과 즐거운 마음이 건강의 기본. 80년생 제3의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의리와 절제가 필요. 92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45년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마라. 57년생 본인의 거짓말로 결국은 사면초가(四面楚歌)된다. 69년생 마음을 비우고 그냥 웃으며 살자. 81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경사가 꽃핀다. 93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은 탐내지 마라.



46년생 길 떠나게 되면 상박약을 챙겨라. 58년생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70년생 지지치 않기 위해 명상을 해보라. 82년생 이익 앞에서는 감탄고토(甘탄苦吐)가 될 수 밖에 없으니 누구를 탓하라. 94년생 뜻밖의 초대로 기분이 좋은 하루.



47년생 물 건너서 기쁜 소식이 들려오니 될 듯이 기쁘다. 59년생 큰 업체에서 일거리가 들어온다. 71년생 서로를 위해 좋은 것을 포기. 83년생 다른 이들에게 눈을 돌리자 마라. 95년생 반려 아가들을 때리려면 귀뚜자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김상회의四季 주식의 유래

주식 투자는 항상 희비의 쌍곡선을 그린다. 어느 종목에 언제 투자했는지에 따라 누구는 큰돈을 얻고 누구는 큰돈을 잃는다. 투자와 손실 같은 종목을 같은 가격에 매수했어도 언제 어느 가격에 매도했느냐에 따라 수익의 규모가 달라진다. 매일 같이 울고 웃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투자자를 웃게 하고 울게 만드는 주식은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 현대의 주식회사와 같은 구조는 네덜란드에서 생겨났다고 한다. 1602년에 설립된 동인도 회사를 그 시작으로 본다. 당시는 대항해시대 유럽 여러 나라에서 아시아 등으로 무역선을 보냈다.

한 번 항해를 갔다 오면 큰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무역에 투자했다. 투자라는 건 예나 지금이나 실패의 가능성이 있는 것. 항해에 나섰던 배가 침몰해서 사람들이 투자금을 모두 날리는 일도 잦았다. 이런 위험을 줄이려고 개인이나 회사들이 자금을 조금씩 모아서 함께 투자했다. 수익이 생기면 출자금 지분에 비례해서 나눠 받고, 손해가 생기면 출자금만큼 손실 보는 방식이었다. 여기서 투자한 만큼 받았던 지분이 근대적인 주식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이런 지분을 사고팔 수 있는 형태의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최초의 주식회사다.

당시의 주식은 개개인의 분산 출자와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이 기본 개념이었다. 이렇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지분 자체를 상품처럼 거래한 것이 현대와 같은 주식 투자의 출발점이다. 동인도 회사는 주식도 발행했는데 1606년에 발행된 것이 역사상 가장 오래된 주식이다. 주식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자리 잡은 것은 19세기다.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주라고 하는데 이는 자기가 투자한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학습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오의 알파벳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8	2	3			9
	5		6		
3		9			6
6			8	7	
		6	5		
	3		1		6
	8			4	7
			5		3
2			4	1	8

1	5	8			4
		5			
	9		2	6	
			7		8 2
	7			7	
6	2		5		3
		3	4		7
				5	
5			6	4	8

8	1	9	7	6	4	9	8	2
2	8	6	8	9	1	7	9	4
4	9	7	9	8	2	1	8	6
9	8	2	1	7	8	6	9	
8	6	1	9	2	9	8	4	7
9	7	4	8	6	2	1	9	
1	9	8	2	9	6	7	8	
7	2	8	6	9	8	4	9	1
6	4	9	1	7	8	9	2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영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2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2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